족보닷컴
ZOCBO.COM

시대별 문학 콘텐츠 이용 안내

시대적 배경과 문학 경향

문학사 개관

1

• **시대 특징**

1) 1920년대의 문화주의가 끝나고, 병참기지화 정책이 추진됨.
2)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사회적, 경제적 수탈과 통제(치안 유지법 강화, 보호관찰법, 사상범예방 구금령, 조선어 폐지,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가 심화됨.
3) 식민지 자본주의가 확립되어 가던 시기로, 기형적이지만 도시가 급격히 발달함.
4) 사회주의에 대한 탄압 심화로 사회주의자들이 '전향'하기도 함.

2

• **문학 경향**

모더니즘, 순수 문학, 농촌 소설, 역사 소설, 가족사 소설, 장편 소설

1) 다양한 인쇄 매체를 통한 창작 활동 활발 (기존 신문 이외에 각종 문예지와 잡지 발행)
2) 일본 유학파 지식인층의 확대로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양 학문과 이론, 문예사조들이 본격 보급, 수용 → 다양한 창작 활동의 기반
3) 모더니즘 경향이 주를 이룸.
4) 경성이 근대적 도시로 발달함에 따라, 근대 도시 문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이 작품에 반영됨.
5) 장편 소설: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 문예지, 잡지, 신문 등을 통한 장기 연재가 가능해 지면서 다양한 장편 소설이 발표됨.
6) 농촌 소설: 러시아에서 유행했던 '브나로드 운동'의 영향으로 농촌을 소재로 하거나, 농촌을 계몽하기 위한 소설들이 등장함.
7) 역사 소설: 일제의 검열을 피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의도에서 역사 소설이 창작됨.
8) 가족사 소설: 몇 세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들의 삶과 의식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다양한 고민과 갈등, 문제들을 심도있게 탐구함.

❶ 시대 특징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정리합니다.
시대적 상황과 연관 지어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❷ 문학 경향

작품이 속한 문학 사조와 경향을 정리합니다.
문학 사상, 문학적 맥락이 작품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특징과 대표 작품

작가 소개



3

• **김유정 (1908~1937), 강원도 춘천 태생**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향을 떠나 춘천과 서울을 오가면서 간의학교를 운영하기도 했고 방랑 생활을 하거나 금광을 전전하기도 했다. 1935년도 '소낙비'와 '노다지'가 당선되어 등단하였고, 이상과 깊은 친분을 유지했다. 대부분의 그의 작품은 농촌을 무대로 하며, 해학적이면서도 현실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소설들을 주로 썼다. 1937년 폐결핵으로 요절할 때까지 주옥같은 30편의 단편과 10편의 에세이를 남겼다.

• **주요 작품 :** 시골 사춘기 남녀의 순박한 사랑이야기 ★《동백꽃》
머슴인 데릴 사위와 장인 사이의 갈등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봄봄》
일제 강점기 우리 농민의 아픔을 그린 《금 따는 콩밭》
일제 강점기 농촌 사회에 가해지는 가혹함과 폐해를 그린 ★《만무방》

4

❸ 작가의 생애

작가의 삶과 사상, 활동 등을 정리합니다.
작가의 체험과 활동 등 전기적 사실을 알고 작품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❹ 주요 작품

작가의 대표적 작품을 정리합니다.
작가가 추구했던 삶이 작품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작품 전체 정리

• 개관 정리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 현대 소설
성격	해학적, 토속적
배경	1930년대 봄, 어느 강원도 산골 마을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 시골 사춘기 남녀의 순박한 사랑
특징	- 토속적 어휘, 사투리 사용 -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사실감, 현장감을 부여함. - 역순행적 구성 (현재-과거-현재) - 주인공을 어리숙한 인물로 설정하고, 대조적 성격의 중심인물을 등장시켜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함. - 짧고 간결한 문장과 속도감 있는 전개 - 판소리의 해학적 전통을 계승함
구성	- 역순행적 구성 (현재-과거-현재)

구성 단계	시간적 배경	주요 사건
발단	현재	점순이가 닭싸움을 벌임.
전개	과거	- 나흘 전, '나'가 점순이의 감자를 거절함. (→ 갈등의 원인) - 이후 점순이가 '나'를 괴롭힘.
위기	과거	'나'는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까지 먹였으나 '점순네 닭'과의 싸움에서 짐.
절정	현재	- 점순이와 '나'의 갈등이 심화됨. - '나'가 점순네 닭을 때려죽임.
결말	현재	점순이와 '나'가 화해함.

• 주요 소재

감자	갈등의 계기,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 표현
닭싸움	애정 갈등의 매개 역할, 미움과 애정이라는 이중적인 감정 표현
동백꽃	화해와 사랑의 분위기 형성, 작품의 서정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두 남녀의 애정을 승화시켜 주는 소재

• 전체 줄거리 요약

열 일곱 살인 나는 동갑내기 처녀 점순이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 얼마 전 몰래 감자를 주는 걸 받지 않은 이후로 점순이는 고의적으로 닭싸움을 시켜서 나를 자꾸만 약올린다. 나는 잘 싸우라고 우리집 닭에게 고추장까지 먹여보지만 사나운 점순네 닭을 이기지 못한다. 하루는 나무를 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점순이가 청승맞게 호드기를 불고 있다. 또 닭싸움을 시키고 있는 중이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단매에 점순네 닭을 때려죽인다.

그리고는 앞일이 걱정되어 울음을 터뜨린다. 그러자 점순이는 닭이 죽은 건 염려 말라며 나를 안고 슬쩍 동백꽃 속으로 쓰러진다. 알싸한 꽃내음에 나는 정신이 아찔해진다. 그러나 마을에서 들려오는 점순이 어머니의 역정 소리에 놀라 두 사람은 이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쳐버린다.

❺ 개관 정리
작품 전체를 표로 정리합니다.
작품의 갈래, 성격, 배경 및 시점, 주제, 특징, 구성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❻ 주요 소재
주요 소재 또는 시어, 주요 인물 등을 정리합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작품 전체의 분위기까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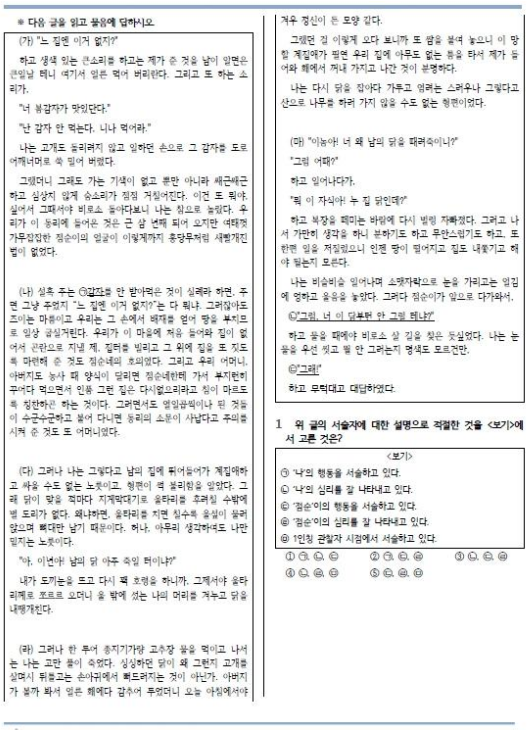
❼ 전체 줄거리 요약
전체 줄거리 또는 분위기 등을 정리합니다.
작품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와 문제

Point 1 나흘 전,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점순'은 '나'에게 감자를 주지만, '나'는 거절한다.

8

나흘 전 감자 쪼갠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 감자 쪼갠: 점순이는 '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표시로 '감자'를 건네지만, 어수룩한 나는 점순이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절함.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중략)
↳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의 표현
언제 구웠는지 더운 김이 확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 '나'의 성격: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어수룩하고 눈치가 없음. 이러한 '나'의 모습은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음.
반면에 '점순이'는 적극적이고 영악하며, 당차고 씩씩한 성격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래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채근채근하고 심상치 않게 승스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도 뭐야. 살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장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두장잡한 점순이의 일을이 이렇게까지 흥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나) 실축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러잖아도 조이는 마음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채를 얻어 땅을 부치로 일상 굶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근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지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칭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엄일윤택이나 된 것을 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력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랑을 먹마다 지게막대기로 울타리를 호려질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지면 칠수록 울섬이 불려 많으며 볼대만 남기 때문이다. 하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밑지는 노릇이다.

"아,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냐?"

내가 도지는을 보고 다시 꽥 호령을 하니까, 그제서야 울타리께로 포르르 모이니 울 밖에 섰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라) 그러나 한 푸어 총지기가랑 고추장 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손아귀에서 뿌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헤에다 감추어 푸었더니 오늘 아침에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그렇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생을 불여 놓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헤에서 꺼내 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집어다 가투고 엄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마)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량이 떨어지고 집도 내돌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엉겁에 영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래, 너 이 담부턴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떼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될 한 그러는지 영새도 모르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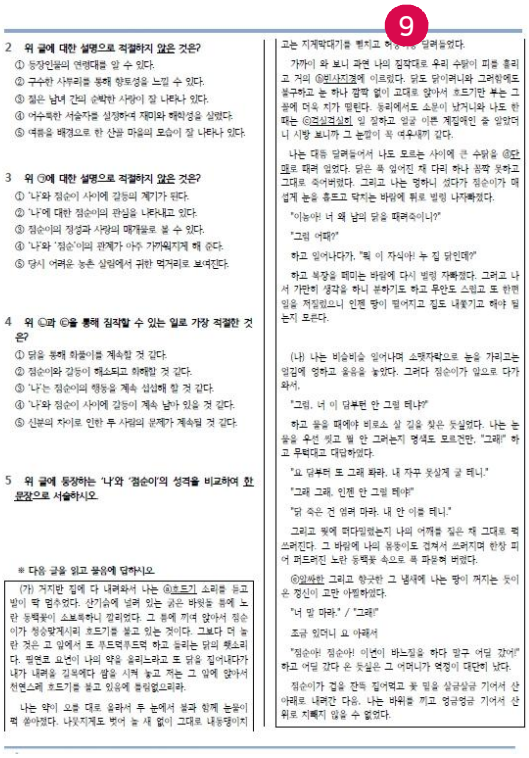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1 위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나'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ㄴ. '나'의 심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ㄷ. '점순'이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ㄹ. '점순'이의 심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ㅁ.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ㄷ, ㅁ



9

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등장인물의 연령대를 알 수 있다.
② 구수한 사투리를 통해 향토성을 느낄 수 있다.
③ 짧은 냄녀 간의 순박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④ 어수룩한 서술자를 설정하여 재미와 해학성을 살렸다.
⑤ 여름을 배경으로 한 산골 마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3 위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와 점순이 사이에 갈등의 계기가 된다.
②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③ 점순이의 정성과 사랑의 매개물로 볼 수 있다.
④ '나'와 '점순'이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지게 해 준다.
⑤ 당시 어려운 농촌 상황에서 귀한 먹거리로 보여진다.

4 위 ㉡과 ㉢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닭을 통해 하룻이를 계속할 것 같다.
② 점순이와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할 것 같다.
③ '나'는 점순이의 행동을 계속 심심해 할 것 같다.
④ '나'와 점순이 사이에 갈등이 계속 남아 있을 것 같다.
⑤ 신분의 차이로 인한 두 사람의 문제가 계속될 것 같다.

5 위 글에 등장하는 '나'와 '점순이'의 성격을 비교하여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지반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드기 소리를 듣고 벌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복하니 깔리었다. 그 틈에 끼여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시리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고 앙에서 또 푸드덕푸드덕 하고 들리는 닭의 횃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팡을 시켜 놓고 쳐는 그 앙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모지게도 벗어 놓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치고는 지게막대기를 휘두르며 허겁지겁 달려들었다.

가까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반사지경에 이르렀다. 덤도 당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앙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품에 더욱 지가 밉힌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남지나와 나도 한 패는 ⓒ정실경쟁 임 질하고 얼굴 이른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나는 대동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한 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영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흐르고 닥치는 바람에 휘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량이 떨어지고 집도 내돌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엉겁에 영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 담부턴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떼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될 한 그러는지 영새도 모르겐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 담부턴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닷싱게 갈 테니."

"그래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당 죽은 건 임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뒷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둥이도 겹쳐서 쓰러져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정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밀 마라." /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점순아! 이년이 바느질을 하다 말구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득 집어먹고 꿀 밀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영금영금 기어서 산 위로 치빼지 않을 수 없었다.

⑧ 핵심 포인트 1,2,3

꼭 알아야 할 주요 부분을 선별하여 정리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장 및 구절을 상세 분석하여 빠른 이해를 돕습니다.

⑨ 핵심 문제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봅니다.
작품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작품 개관과 핵심 포인트를 통해 다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8-08-20
2) 제작자 : 교육지대㈜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외에도「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학사 개관

• **시대 특징**

1) 1920년대의 문화주의가 끝나고, 병참기지화 정책이 추진됨.
2)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사회적, 경제적 수탈과 통제(치안 유지법 강화, 보호관찰법, 사상범예방 구금령, 조선어 폐지,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가 심화됨.
3) 식민지 자본주의가 확립되어 가던 시기로, 기형적이지만 도시가 급격히 발달함.
4) 사회주의에 대한 탄압 심화로 사회주의자들이 '전향'하기도 함.

• **문학 경향**

모더니즘, 순수 문학, 농촌 소설, 역사 소설, 가족사 소설, 장편 소설

1) 다양한 인쇄 매체를 통한 창작 활동 활발 (기존 신문 이외에 각종 문예지와 잡지 발행)
2) 일본 유학파 지식인층의 확대로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양 학문과 이론, 문예사조들이 본격 보급, 수용 → 다양한 창작 활동의 기반
3) 모더니즘 경향이 주를 이룸.
4) 경성이 근대적 도시로 발달함에 따라, 근대 도시 문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이 작품에 반영됨.
5) 장편 소설: 인쇄술의 발달에 따라 문예지, 잡지, 신문 등을 통한 장기 연재가 가능해 지면서 다양한 장편 소설이 발표됨.
6) 농촌 소설: 러시아에서 유행했던 '브나로드 운동'의 영향으로 농촌을 소재로 하거나, 농촌을 계몽하기 위한 소설들이 등장함.
7) 역사 소설: 일제의 검열을 피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의도에서 역사 소설이 창작됨.
8) 가족사 소설: 몇 세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들의 삶과 의식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다양한 고민과 갈등, 문제들을 심도있게 탐구함.

작가 소개



• **김유정 (1908~1937), 강원도 춘천 태생**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향을 떠나 춘천과 서울을 오가면서 간의학교를 운영하기도 했고 방랑 생활을 하거나 금광을 전전하기도 했다. 1935년도 '소낙비'와 '노다지'가 당선되어 등단하였고, 이상과 깊은 친분을 유지했다. 대부분의 그의 작품은 농촌을 무대로 하며, 해학적이면서도 현실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소설들을 주로 썼다. 1937년 폐결핵으로 요절할 때까지 주옥같은 30편의 단편과 10편의 에세이를 남겼다.

• **주요 작품 :** 시골 사춘기 남녀의 순박한 사랑이야기 ★《동백꽃》
머슴인 데릴 사위와 장인 사이의 갈등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봄봄》
일제 강점기 우리 농민의 아픔을 그린 《금 따는 콩밭》
일제 강점기 농촌 사회에 가해지는 가혹함과 폐해를 그린 ★《만무방》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805호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I410-ECN-0199-2018-001-000747407

작품 미리보기

• 개관 정리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 현대 소설
성격	해학적, 토속적
배경	1930년대 봄, 어느 강원도 산골 마을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사랑, 시골 사춘기 남녀의 순박한 사랑
특징	- 토속적 어휘, 사투리 사용 -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사실감, 현장감을 부여함. - 역순행적 구성 (현재-과거-현재) - 주인공을 어리숙한 인물로 설정하고, 대조적 성격의 중심인물을 등장시켜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함. - 짧고 간결한 문장과 속도감 있는 전개 - 판소리의 해학적 전통을 계승함
구성	- 역순행적 구성 (현재-과거-현재)

구성 단계	시간적 배경	주요 사건
발단	현재	점순이가 닭싸움을 벌임.
전개	과거	- 나흘 전, '나'가 점순이의 감자를 거절함. (→ 갈등의 원인) - 이후 점순이가 '나'를 괴롭힘.
위기	과거	'나'는 자신의 닭에게 고추장까지 먹였으나 '점순네 닭'과의 싸움에서 짐.
절정	현재	- 점순이와 '나'의 갈등이 심화됨. - '나'가 점순네 닭을 때려죽임.
결말	현재	점순이와 '나'가 화해함.

• 주요 소재

감자	갈등의 계기, '나'에 대한 점순이의 애정 표현
닭싸움	애정 갈등의 매개 역할, 미움과 애정이라는 이중적인 감정 표현
동백꽃	화해와 사랑의 분위기 형성, 작품의 서정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두 남녀의 애정을 승화시켜 주는 소재

• 전체 줄거리 요약

열 일곱 살인 나는 동갑내기 처녀 점순이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한다. 얼마 전 몰래 감자를 주는 걸 받지 않은 이후로 점순이는 고의적으로 닭싸움을 시켜서 나를 자꾸만 약올린다. 나는 잘 싸우라고 우리집 닭에게 고추장까지 먹여보지만 사나운 점순네 닭을 이기지 못한다. 하루는 나무를 해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점순이가 청승맞게 호드기를 불고 있다. 또 닭싸움을 시키고 있는 중이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단매에 점순네 닭을 때려죽인다.

그리고는 앞일이 걱정되어 울음을 터뜨린다. 그러자 점순이는 닭이 죽은 건 염려 말라며 나를 안고 슬쩍 동백꽃 속으로 쓰러진다. 알싸한 꽃내음에 나는 정신이 아찔해진다. 그러나 마을에서 들려오는 점순이 어머니의 역정 소리에 놀라 두 사람은 이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도망쳐버린다.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805호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I410-ECN-0199-2018-001-000747407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

Point 1 나흘 전,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점순'은 '나'에게 감자를 주지만, '나'는 거절한다.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 감자 쪼간: 점순이는 '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표시로 '감자'를 건네지만, 어수룩한 나는 점순이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절함.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중략)
↳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의 표현
언제 구웠는지 더운 김이 홱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 '나'의 성격: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어수룩하고 눈치가 없음. 이러한 '나'의 모습은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음.
반면에 '점순이'는 적극적이고 영악하며, 당차고 씩씩한 성격임.

Point 2 자신의 성의를 무시한 '나'에게 화가 난 '점순'은 '나'의 집 '닭'을 괴롭힌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제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 놓는다.
↳ 닭싸움: 점순이의 '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반어적 표현. 점순이와 '나'와의 갈등을 대신하여 나타나는 소재. 소설 후반부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됨.
제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쌈이라면 홰를 치는 고로 으레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 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꾀어내다가 쌈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차를 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께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중략)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 점순이네 닭을 죽인 '나':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붙인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달려들었다가 점순이네 수탉을 죽게 함.
마름 집 닭을 죽게한 '나'는 점순이네서 쫓겨날까 봐 걱정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임.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홉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 점순이와 '나'의 관계: 점순이네 집이 '마름'이고 '나'의 집이 점순이네 집에 신세를 지고 있는 '소작농'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점순이의 괴롭힘에도 '나'는 억울해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었음.
*마름: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소작농: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며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려 짓는 농사. 또는 그런 농민.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805호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I410-ECN-0199-2018-001-000747407

Point 3 '나'의 걱정을 '점순'이 해결해 주며 갈등이 해소됨, 노란 동백꽃 속에 파묻히는 '나'와 '점순'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담부텀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 닭: 갈등 해소의 매개체
그리고 뭣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 점순이의 적극성: 점순이의 적극적인 애정 표현이 나타남. 어리숙하고 순박한 '나'는 눈치채지 못함.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 노란 동백꽃: 향토적, 토속적,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
이 작품에서의 동백꽃은 강원도 방언으로 '생강나무꽃'을 의미하여 '노란색'으로 표현됨.

핵심 문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쌔근쌔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나)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러잖아도 즈이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굽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막대기로 울타리를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섶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밑지는 노릇이다.

"아,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냐?"

내가 도끼눈을 뜨고 다시 꽥 호령을 하니까, 그제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섰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라) 그러나 한 두어 종지기가량 고추장 물을 먹이고 나서는 나는 고만 풀이 죽었다. 싱싱하던 닭이 왜 그런지 고개를 살며시 뒤틀고는 손아귀에서 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볼까 봐서 얼른 홰에다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아침에서야 겨우 정신이 든 모양 같다.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쌈을 붙여 놓으니 이 망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805호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I410-ECN-0199-2018-001-000747407

할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홰에서 꺼내 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마)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 담부턴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1 위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나'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 '나'의 심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 '점순'이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 '점순'이의 심리를 잘 나타내고 있다.
㉤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등장인물의 연령대를 알 수 있다.
② 구수한 사투리를 통해 향토성을 느낄 수 있다.
③ 젊은 남녀 간의 순박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④ 어수룩한 서술자를 설정하여 재미와 해학성을 살렸다.
⑤ 여름을 배경으로 한 산골 마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3 위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와 점순이 사이에 갈등의 계기가 된다.
②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③ 점순이의 정성과 사랑의 매개물로 볼 수 있다.
④ '나'와 '점순'이의 관계가 아주 가까워지게 해 준다.
⑤ 당시 어려운 농촌 살림에서 귀한 먹거리로 보여진다.

4 위 ㉡과 ㉢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닭을 통해 화풀이를 계속할 것 같다.
② 점순이와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할 것 같다.
③ '나'는 점순이의 행동을 계속 섭섭해 할 것 같다.
④ '나'와 점순이 사이에 갈등이 계속 남아 있을 것 같다.
⑤ 신분의 차이로 인한 두 사람의 문제가 계속될 것 같다.

5 위 글에 등장하는 '나'와 '점순이'의 성격을 비교하여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지반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드기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산기슭에 널려 있는 굵은 바윗돌 틈에 노란 동백꽃이 소보록하니 깔리었다. 그 틈에 끼여 앉아서 점순이가 청승맞게시리 호드기를 불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고 앞에서 또 푸드덕푸드덕 하고 들리는 닭의 횃소리다. 필연코 요년이 나의 약을 올리느라고 또 닭을 집어내다가 내가 내려올 길목에다 쌈을 시켜 놓고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천연스레 호드기를 불고 있음에 틀림없으리라.

나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서 두 눈에서 불과 함께 눈물이 퍽 쏟아졌다. 나뭇지게도 벗어 놀 새 없이 그대로 내동댕이치고는 지게막대기를 뻗치고 허둥허둥 달려들었다.

가까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 때는 ⓒ걱실걱실히 일 잘하고 얼굴 이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805호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I410-ECN-0199-2018-001-000747407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섰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흡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그럼 어때?"

하고 일어나다가,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하고 복장을 떼미는 바람에 다시 벌렁 자빠졌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 나는 비슬비슬 일어나며 소맷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 담부턴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 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테니."

"그래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뭣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 말 마라." / "그래!"

조금 있더니 요 아래서

"점순아! 점순아! 이년이 바느질을 하다 말구 어딜 갔어!" 하고 어딜 갔다 온 듯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 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치빼지 않을 수 없었다.

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가)에서는 사건의 시작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사건이 본격화되고 갈등이 발생한다.
③ (가)에서는 갈등이 심화되고 위기감이 조성된다.
④ (나)에서는 갈등이 해소되며 주제가 드러난다.
⑤ (나)에서는 사건이 예기치 않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된다.

7 **위 ⓐ-ⓔ의 낱말 풀이로 옳은 것은?**

① ⓐ 호드기 : '호루라기'의 옛말
② ⓑ 빈사지경 : 먹지 못해 굶어 죽을 지경
③ ⓒ 걱실걱실히 : 조심스럽고 얌전한 태도로
④ ⓓ 단매 : 단단하고 길이가 짧은 매(회초리)
⑤ ⓔ 알싸한 : 매운맛이나 연기로 콧속이 알알한

8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과 「봄.봄」 속 주인공들은 대부분 어리숙하고 우직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들의 말과 행동은 끝없이 독자들의 웃음보를 자극한다. 이 웃음의 요소 속에서는 권위를 지닌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꼬는 공격적인 (㉠) 보다는 대상에 대해 호감과 연민을 느끼게 하는 (㉡)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보기>

모순성 풍자성 역설성 해학성

9 **위 글에서 닭싸움을 붙인 점순이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대화는?**

① "이놈아! 너, 왜 남의 닭을 때려죽이니?"
② "뭐, 이 자식아! 누 집 닭인데?"
③ "요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터니."
④ "너, 말 마라."
⑤ "점순아! 점순아! 이년이 바느질을 하다 말구 어딜 갔어!"

10 **'노란 동백꽃'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토속적인 소재로서 작품에 서정성을 부여한다.
②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이끌어 내는 소재이다.
③ 남녀 간의 애정 싸움에 잘 어울리는 배경이다.
④ 닭싸움 이후에 일어날 새로운 사건을 암시한다.
⑤ 등장인물의 심리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805호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I410-ECN-0199-2018-001-00074740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덕푸드덕 하고 닭의 횃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 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나)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중략>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다) 그렇잖아도 즈이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굽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에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기를 복복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라)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얘! 너 배냇병신이지?"

그만도 좋으련만

"얘! 너 느 아버지가 고자라지?"

"뭐? 울 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그러나 점순이의 침해는 이것뿐이 아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틈틈이 즈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쌈을 붙여 놓는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채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께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께로 들이밀고 먹여 보았다. 닭도 고추장에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진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마) 가차이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히 일 잘하고 얼굴 이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 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엎었다. 닭은 푹 엎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바) 그러다 점순이가 앞으로 다가와서,

"그럼, 너 이 담부턴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 담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살게 굴 터니."

"그래 그래, 인젠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 안 이를 테니."

그리고 뭣에 떠다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드러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11 **위 ⓐ-ⓔ의 단어의 뜻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다.

② ⓑ는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③ ⓒ는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는 차용증'이다.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805호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I410-ECN-0199-2018-001-000747407

④ ⓓ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꾀'이다.

⑤ ⓔ는 '거의 죽을 지경'이다.

12 **위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을 표현하였다.

② 주제는 사춘기 산골 남녀의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문장이 복잡하고 매우 길며, 사건의 전개가 느리고 설명이 많은 문체이다.

④ 토속적인 어휘를 구사하여 떠나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잘 드러내었다.

⑤ 신분의 격차를 강하게 부각시켜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나타내었다.

13 **위 소설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나'는 점순이의 감자를 거절할 수 있을 만큼 대범하고 겁이 없다.

② '나'는 닭싸움을 즐기며, 직접 싸우는 것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성격이다.

③ 점순이는 일부러 남의 닭을 훔치고 남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 악당이다.

④ 나는 닭싸움에서 이기려고 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다.

⑤ 점순이는 '나'에게 몰래 감자를 가져다주는 수줍음이 많고 여성스러운 성격이다.

14 **<보기>는 위 소설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A, B를 각각 서술하시오.**

<보기>

이 소설은 닭싸움을 매개로 하여, '현재 → 과거 → 현재'의 (A) 구성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소설의 시점은 (B) 이다.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805호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I410-ECN-0199-2018-001-000747407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해설] 위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었다. 그러므로 서술자 '나'는 '나'의 행동과 심리, '점순'의 행동은 서술할 수 있지만, '점순'의 심리는 알지 못하므로 서술할 수 없다.

2) [정답] ⑤
[해설] '노란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핀 산'이라는 배경을 통해 이 소설의 배경이 봄임을 알 수 있다.

3) [정답] ④
[해설] '감자'는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이게 되는 원인이 되어 '나'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러므로 '감자'가 '나'와 점순이의 관계를 가까워지게 해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 [정답] ②
[해설] 다신 그러지 말라는 점순이의 말에 그러겠다고 하는 '나'의 대답을 통해 둘의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할 것임을 알 수 있다.

5) [정답] '나'는 무뚝뚝하고 고지식하지만, 점순이는 '나'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해설] '나'는 점순이가 준 감자를 딱 잘라 거절하는 것으로 보아 무뚝뚝하고 고지식한 성격이고, 점순이는 '나'에게 감자를 건네며 말을 붙이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성격의 인물이다.

6) [정답] ④
[해설] (나)는 이 소설의 결말로, '나'와 '점순'이 동백꽃 속에 파묻히면서 화해가 이루어진다.

7) [정답] ⑤
[해설] ⓐ'호드기'는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피리', ⓑ'빈사지경'은 '거의 죽을 지경', ⓒ'걱실걱실히'는 '성질이 너그러워 말과 행동을 시원스럽게 하는 모양', ⓓ'단매'는 '단 한 번 때리는 매'를 의미한다.

8) [정답] ㉠풍자성 ㉡해학성
[해설] 해학은 어떤 인물을 우습게 만들어 '동질감', '친근감', '동정' 등을 유도하여 '긍정'하기 위해 쓰는 기법이고, 풍자는 어떤 인물을 우습게 만들어 '조롱'하여 '비판' 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9) [정답] ③
[해설]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이는 것은 감자를 거절한 '나'를 원망하고 앙갚음을 하려는 것이므로 ③이 가장 적절하다.

10) [정답] ①
[해설] '동백꽃'은 봄이라는 계절과 노란 동백꽃의 빛깔이 첫사랑의 느낌과 잘 어울려 작품의 서정성을 높인다.

11) [정답] ③
[해설] '배재'는 마름과 소작인이 주고받는 소작권 위임 문서를 의미한다.

12) [정답] ②
[해설] 이 소설은 산골 젊은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을 주제로 하며,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13) [정답] ④
[해설] '나'는 '나'의 집 닭을 닭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 고추장을 먹이는 것으로 보아, 지기 싫어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4) [정답] A-역순행적, B-1인칭 주인공 시점
[해설] 이 소설은 '닭싸움'을 중심으로 한 갈등의 흐름을 '현재-과거-현재'의 구성으로 표현하는 역순행적 구성이며, 순박하고 어수룩한 '나'를 서술자로 설정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족보닷컴 zocbo.com
Copyright (c) since 2000 EDUZONE Co,.Ltd all rights reserved
교육지대(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805호 대표전화 : 1544-5633 FAX : 02-521-0331
I410-ECN-0199-2018-001-000747407